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刊並十二面

헐國務長官의 言明
戰債問題에 一轉機
現物又는 勞働에 依한 支拂受諾
英의 對米錫供給可能

【華盛頓十三日發聯合】헐 國務長官은 十二日英大使린제氏에게 手交한 通牒에서 米國政府는 現物又는 勞務에 依한 戰債支拂을 受諾하고 用意잇는 旨를 言明하얏슴으로 오래 동안 停頓狀態에 잇든 戰債問題는 이에 一轉機를 示함에 至하얏다 英國政府와의 間에 現物拂協定이 成立되면 爲先 第一에 錫에 依한 支拂이 實現될 듯하다 米國政府는 主로 供給을 國內에 仰하고 一旦 戰爭이 起하는 時 外國으로부터 輸入이 杜絶되면 僅四個月에 北米의 錫供給資源은 涸渴할 實情에 잇서 米政府는 錫의 供給資源調査開發을 奬勵하고 잇슴으로 最近 日本에 對한 錫輸出이 激增하고 잇슴으로 錫輸出禁止의 提案이 米國議會에 提出된 狀態이다 但 米國政府로서는 現物拂을 認할 意向으로 債의 一部에 끗치게할 意向으로 루스벨트 大統領은 新聞記者團에 對하야 左와 如히 말하얏다

米國政府는 現物에 依한 戰債支拂을 考慮할 用意가 잇스나 現物拂로서는 戰債의 一部分만이다 헐國務長官의 通牒에 現物拂에 應한다고는 말하지 안엇다

米國、英國에 戰債實物拂提議

【電通華盛頓十二日發】米國의 對英戰債回答은 米國은 相互利益을 約束하는 實物拂又는 此에 類似한 提案을 愼重考慮할 意思가 잇다고 述하고 英國에 對하여는 新提案提出을 勸告하고 잇는데 右는 現金에 代하야 고무、錫、라디움 及 其他 米國에 必要한 物質로서 支拂함을 承認하기를 暗示한 것인바 戰債交涉에 새로운 길을 開拓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잇다 그리고 實物拂의 提議는 모든 戰債債務國에 適用할 模樣인데 此에 對하야 債務國側의 態度는 極히 注目되여 잇다

戰債有効性 佛事實上認定

【華盛頓十三日發聯合】佛國政府는 十二日 戰債年賦金支拂을 米國政府에 通告하얏는데 右通牒에서 事實上 戰債의 有効性을 認하고 左와 如히 述하얏다

佛國政府는 佛國政府의 戰債三十九億六千七十七萬二千二百三十八弗의 有効性을 承認하나 從來 同樣의 事情에 鑑하야 그 支拂을 하지 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但 佛政府는 佛米兩國의 受諾할 수 잇는 基礎下에 協定을 遂할 準備가 잇고 또 갓가운 將來에 右協定에 到達할 것을 希望한다

安全保障案審議 私的折衝으로 進行
軍縮雜則委員會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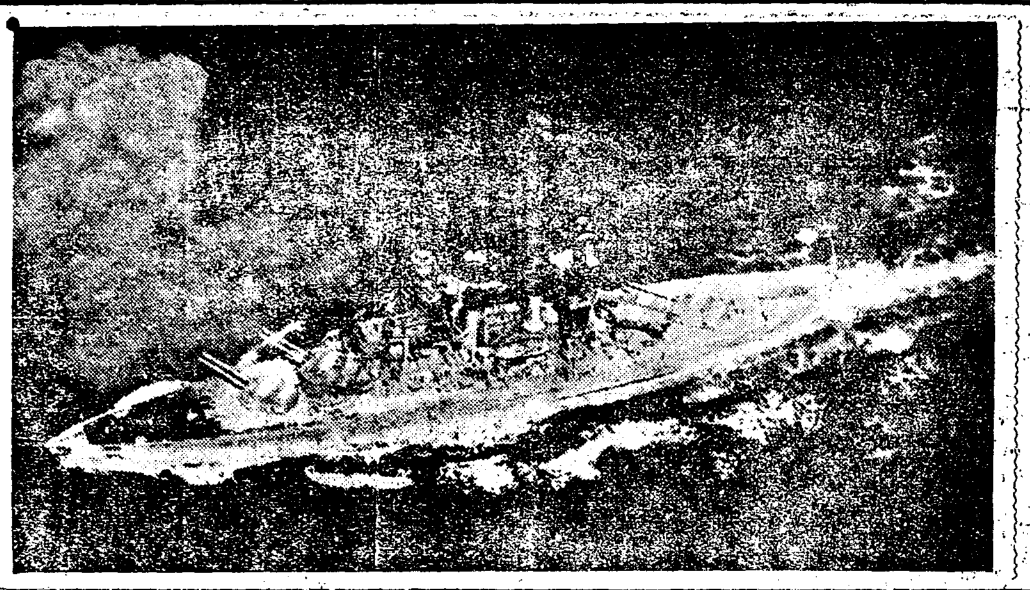
【쥬네브十三日發聯合】軍縮一般委員會의 決定에 基한 軍縮雜則委員會는 十三日午後會議를 開하고 安全保障案에 關하야 審議를 遂하엿다 席上 日本代表 横山正幸氏는 安全保障案에 關한 日本政府의 立場을 다시 確言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日本政府는 一九三三年十一月 軍縮監督案에 關하야 右一般的 留保를 附하엿스나 右一般的 留保는 同時에 安全保障案에 關하야도 또한 適用될 것이다

蘇聯代表스턴氏는 留保를 聲明하여 曰

蘇聯政府는 安全保障制度가 一般的이 아니면 右制度에 參加할 수 업다 特히 隣接諸國이 右安全保障에 參加함을 絶對 必要條件으로 하다

이리하야 委員會는 安全保障案 實行의 具體的 討議에 入지 안코 主要國代表間의 私的折衝을 暫時 進行하기로 意見一致를 보고 그에 關한 件을 決定하엿다



米戰鬪艦『웨스트버지니아』 太平洋海軍大演習때에 戰鬪艦『웨스트·버지니아』가 敵機를 砲擊하는 光景인데 이 戰鬪艦에는 十六吋의 大砲를 滿載하얏다

米海軍部內反對로 新型巡洋艦中止?
八吋備砲一隻、六吋備砲三隻 都合四隻의 一萬噸級

【華盛頓十三日發聯合】米國政府는 來一九三四年부터 三五年度에 亘하야 八吋備砲一隻、六吋備砲三隻 都合四隻의 一萬噸級巡洋艦을 建造하고 內一隻에는 飛行機發着甲板을 裝備하야 造艦術上에 一機軸을 劃한 意氣이엿스나 右新型巡洋艦에 對하야 米國海軍部內에 相當히 强硬한 反對意見이 나는 模樣인대 스완슨長官은 十三日 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 잇서 다음과 如히 言明하엿다

飛行機發着甲板附 六吋備砲巡洋艦의 建造에 對하야는 海軍軍令部는 勿論 海軍將校의 殆半이 反對함으로 新型巡洋艦의 建造計劃은 廢棄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最近 倫敦으로의 情報에는 一九三五年의 海軍會議에서 英國政府에서는 海軍航空力의 減少를 提案할 것으로 傳하나 米國政府가 右提案에 對하야 如何한 態度에 出할는지 아즉 알수 업다 豫備將校訓練隊員四百名은 去十九日부터 約三週間의 豫定으로 練習航海를 始作하야 大西洋各岸에 向하야 太平洋各岸을 訪問하고 布哇 아라스카方面에 赴할 豫定이다

獨伊會見에 對해 聲明書發表
平素希望實現이라고

【羅馬十三日發】獨逸、伊太利兩國首相의 會見을 明日에 압두고 伊國政府는 十三日 左와 如한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聲明書

뭇솔리니、히틀러 兩首相은 오래 前부터 歐羅巴의 一般的 政治情勢에 對하야 親히 意見交換하고 십흔 希望을 가젓스나 明日 베니스에서 兩首相이 會見하는 것은 오즉 右希望에 基한 것에 不外하다

뭇솔리니伊首相 베니스到着

【電通베니스十三日發】뭇솔리니 伊首相은 十四日부터 히틀러 獨首相及 노이라-트 同外相을 迎하야 軍縮聯盟 其他 一般時局問題를 協議하기 爲하야 十三日 羅馬로부터 베니스到着 近郊스트라에 잇는 政府用의 別莊에 入하엿다

北中在留朝鮮人 九百二十八名

【天津十三日發聯合】天津領事館警察 五月分調査에 依하야 天津在留日本人總數는 九千六百二十二名(內朝鮮人九百二十八名、臺灣人四十名)으로 其中 五千五百名은 日本租界에 居住하고 잇다

藏本書記生出家는 精神異狀이 原因
山에서 나려와서 飮食을 買喫
國府發見經過發表

【電通南京十三日發】藏本書記生發見에 至하기까지의 經過에 對하야 國民政府外交部는 非公式으로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首都警察廳은 今月九日 日本總領事館으로 藏本書記生 失踪의 通知를 밧자 同日正午에 곳 調査를 開始하야 擧動 不審한 者 言語의 사투리 쓰는 이 容貌가 不審한 者 神經病者 等에는 特히 注意하는 同時에 嚴重히 搜査를 開始하엿다 然而 今日午前九時에 至하야 陵園附近의 張栄의 電話로 至急 사람을 派遣하여 달라는 請願을 接하엿슴으로 署員二名을 現場에 急派하야 有張某에게 무럿던바 今朝 四十歲假量의 사람으로 茶色帽子를 쓰고 해-진 洋服을 입은 者가 山을 나려와 물을 마시려 왓다가 다시 山을 올너갓다고 하엿슴으로 陵園의 山을 搜査하엿던바 午前十一時前後에 至하야 紫金山 및 明의 孝陵 後方에 顔形、年齡이 供述한 바와 符合하는 者를 發見하엿다 精神에 異狀이 잇는 模樣으로 蓬頭垢面 그 行動等에 잇서 말하는 바가 全혀 支離滅裂하야 그 態度가 怪常함으로 藏本氏의 寫眞과 對照하여 본즉 全혀 符合하엿슴으로 至急히 山을 나려가자고 勸說하엿스나 藏本氏는 應치 안엇스나 再三 勸告에 依하야 비로소 車에 태여 入城하엿다 그때는 午後二時頃이엿다

【電通南京十三日發】藏本書記生 失踪以來의 經過에 對하야 國民政府代辯者는 左와 如히 奇怪한 發表를 하엿다

藏本書記生은 八日夜十時半頃 總領事館前에서 인력거를 나려와 人力車를 타고 紫金山에 至하야 南京街를 바라보고 잇는데 이리(狼)가 나와 非常히 危險을 感한 까닭에 明의 孝陵裏의 洞窟에 入하야 小屋을 만들고자 하고 잇섯는데 一昨日夜를 먹으려고 孝陵前 食物店에 와서 二十錢으로 食物을 사고 물을 求하엿다 그 翌日 또 菓子를 사려고 나려와 섯스나 돈이 不足함으로 카프쓰포트를 典當하려 하엿스나 茶店主人이 듯지 안엇는데 附近의 騷動으로 警察廳에서는 總動員하야 郊外搜査에 全力을 다한 結果 明의 孝陵의 小屋中에서 자고 잇는 것을 發見하고 곳 警察廳에 知하여 왓슴으로 今日午後一時半 馬車로 警察廳에 다려 왓다 또 藏本氏는 事情聽取後 外交部에 引渡하엿다

【電通南京十三日發】藏本書記生을 國民政府外交部로부터 引受한 日本總領事館에서는 午後五時半에 至하야 大要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午後五時十分頃 中國으로부터 ……

城外는 丘陵이 起伏
夜間獨行은 不能
外省嚴重抗議訓電

【電通東京電話】八日夜以來 行方不明되엿든 藏本書記生은 十三日夕刻에 이르러 發見되여 南京總領事館에 無事收容되엿는대 今回의 事件의 眞相에 對하여는 依然 何等判明되지 안음으로 外務省에서도 須磨總領事로부터 詳細한 公電의 到着되기를 鶴首待望하고 잇다 南京側이 今回의 事件을 藏本氏自身의 神經衰弱에 假借하고 責任을 廻避할 가는 發表를 行한대 對하여는 十三日夜 外務省當局은 左와 如히 말하엿다

藏本書記生이 發見되엿다고 稱하는 紫金山麓은 南京城壁外에 잇고 夜間은 中山門이 閉鎖됨으로 城外로 나갈수 업슬뿐더러 同所는 丘陵이 起伏重疊하야 풀이 茂盛함으로 夜間은 中國人이라도 到底히 혼자 갈수 업는 場所이다 藏本書記生이 神經衰弱이라하드라도 何者에게 拉致되지 안코는 同所에 혼자 갈수 업섯다는 것은 常識으로도 알수 잇다 藏本書記生이 發見되엿다하드라도 我國은 今回의 事件의 眞相이 判明되지 안는 以上 이것으로 問題가 解決되엿다고는 絶對할 수 업다 事件自體는 奇怪至極이다 特히 南京政府가 治安維持의 全責任에 任할 中國의 國都南京에서 發生된 것임으로 我國으로서는 어데까지 眞相을 糾明하야 責任의 所在를 明白히 하지 안으면 안된다 一切는 十四日朝 須磨總領事로부터 到達할 詳細한 報告를 기다리고 잇다

眞相을 調査
◇外務省과 總領事館에서 發表

【電通東京電話】外務省에서는 去八日夜來 行方不明으로 된 南京總領事館藏本書記生이 十三日午後에 至하야 生命에 別條업시 總領事館側에 引受되엿다는 報에 接하고 ……는대 今回藏本書記生의 行方不明으로 된 原因及八日以來今日에 至한 經緯에 對하야 現地로부터 何等公電이 업서 仔細히 判明되지 안음으로 事件에 對하야는 아즉 眞相을 嚴重究明할 必要가 잇다하야 今後의 南京政府의 措置에 注目하고 잇다 外務省으로서는 藏本書記生이 無事히 日本側에 돌려보냄으로써 事件은 解決된 것이 안이다 當然 中國側이 그 全責任을 질 것으로 諸般의 交涉準備를 進行하고 잇다

蘇聯官憲越境 朝滿人拉致
滿洲國嚴重抗議

【哈爾濱十三日發聯合】蘇聯側의 不法行爲는 鄂霍號射擊事件을 비롯하야 四、五兩月로 二十數件에 達하엿는데 去五月九日 十三日 二回에 亘하야 蘇聯官憲은 越境侵入하야 十數名의 朝滿人을 拉去하엿다 蘇聯側은 同兩軍用機의 滿洲國不時着以來 非常히 神經을 날카롭게 하야가지고 警備를 嚴重히 하고 잇는데 今回의 重大한 蘇聯의 不法行爲에 滿洲國側은 近日 抗議할터이다

蘇獨兩外相의 會見
重要意義잇다 注目
常設平和機關問題討議

【電通伯林十三日發】蘇聯外務人民委員長리트비노프氏는 今日獨逸外相노이라-트氏와 約四十分에 亘하야 懇談하엿다 兩氏는 모다 그 會談內容에 關하야는 緘口無語이나 最近佛蘇兩國에서 提唱한 東歐羅巴諸國間의 不侵略條約問題에 關하야 懇談한 것으로 觀測되다 이 兩氏의 會談은 最者 리트비노프氏가 쥬네브에서 軍縮會議를 常設平和機關으로 改變하자는 案을 提議한 것과 또 近近 베니쓰에서 히틀러、뭇솔리니 兩首相間에 行하는 會見等과 關聯하야 極히 重要意義가 잇는 것으로 注目되다

海軍交涉에 洪少將出席

【聯合東京電話】次期海軍會議의 日米英三國間에 開始되게 되엿는데 이 會議에 잇서 實的軍縮問題도 上程되게 되기로 되엿슴으로 海軍當局은 專門家를 派遣할 時日이 업슴으로 目下 쥬네브에 잇는 國際聯盟軍縮會議常任海軍代表 洪少將을 倫敦에 參加식히기로 되엿다 그리고 海軍側으로는 洪少將과 倫敦大使館附武官 新大佐가 顧問으로 松平大使를 補佐하기로 되엿다

一方外交部亞洲司長沈覲鼎氏도 憲兵司令谷正倫氏와 警察廳에 集合하야 警察廳長과 함께 善後策을 協議하엿다

多少異常認定
有安醫師談

【電通南京十三日發】自宅으로 도라온 藏本書記生의 健康을 診察한 有安醫師는 左와 如히 말하엿다

身體는 豫想하든 바와 갓치는 衰弱하지 안엇다 別로 疾狀도 認定하기 困難하다 普通健康體로 精神狀態는 多少異狀을 呈하엿스나 아직도 興奮狀態에 잇슴으로 明確한 斷言을 나릴 수 업다

稅關長會議

稅關長會議는 旣報한 바와 가치 來十五日부터 二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키로 되엿는데 出席者는 釜山 仁川 新義州 各稅關長外에 大藏省關係官、長崎稅關長이 列席키로 되엿는바 左의 諮問事項에 關하야 答申을 行할 터이라 한다

一、關稅犯則의 現況及 此의 取締에 關한 方針
二、最近貿易上에 現한 時局影響及 此의 對策
三、貿易及關稅收入豫想額

中國側對策協議

【南京十三日發聯合】藏本書記生發見의 報에 接하는 同時에 行政院秘書長褚民誼氏는 同……러 藏本書記生을 收容하엿다 同書記生은 아즉 生存하여 잇스나 心身이 疲勞하여 잇슴으로 訊問은 避하고 잇스며 健康回復을 기다려 事件의 眞相을 調査할 터이다

中間報告는
今週中困難
事件取調遲遲로

【東京電話聯合】政府는 政局에 一大危機를 招來할 것이라고 豫想되는 大藏省事件의 中間報告는 司法部內에서 同問題의 取調가 着着進捗하고 잇슴으로 今週中에는(大略十五日의 閣議를) 指示함될것으로 政府의 觀測도 그러케 잇섯스나 十三日에 至하야 取調는 豫定과 가티 進行치 못한 狀態로 今週中은 힘들것이다 그러려면 얼마나 豫定이 느저질까에 就하야는 確信할 수 업다는 意見에 變更을 보게 되엿다 이것은 即 大藏省事件의 取調가 進行이 遲遲한 것을 證明하는 것으로 注目되고 잇다

카타로니아獨立絶叫
西班牙分裂의 危機
새로制定한土地法을 廻避하고
中央政府와 對立激化

【발세로나十三日發聯合】카타로니아의 新土地法을 繞하고 카타로니아 自治地帶及中央政府의 對立은 中央政府가 카타로니아의 新土地法을 無効로 制定한데 依하야 俄然 激化하야 카타로니아 一帶는 空氣險惡하야 風雲이 甚히 急迫함을 告하게 되엿다 일의 發端은 西班牙東北部 발세로나 以外 三州로 된 카타로니아 自治地帶에 新土地法을 制定한 데 基因한 것으로 右土地法에 依하면 地主對借地人의 從來의 契約을 無効로 하고 農民은 地租及 其他의 附加金을 支拂하는 義務를 진다는 것이다 右法律이 政府에 回附되엿던바 中央政府는 此를 不法이라 하야 否認하엿스므로 中央政府의 自治侵害이며 또 地主擁護에 蔑하는 것이라 하야 카타로니아 聯邦黨員 社會黨員 에스키에라國民黨員等의 所屬議員 三十六名은 드듸어 議會로부터 退席하고 政府가 그 態度를 고치지 안는 限 다시 도라가지 안는다고 宣言하엿다 極度로 緊張한 中央對 카타로니아의 關係는 발세로나 一帶의 人心을 刺戟하고 到處에 카타로니아 獨立의 聲이 絶叫됨에 이르럿다 一方 中央政府側은 依然態度가 매우 强硬하며 首相 삼페르氏는 土地法實施를 阻止하기 爲하야 實力에 訴함을 不辭한다고 宣言하엿는대 이러하야 西班牙共和國의 誕生當時부터 內政上의 癌이엿든 카타로니아 問題는 及其他 重大化하야 카타로니아 共和國萬歲 等의 聲이 발세로나 一帶에 風靡하고 西班牙共和國은 解體의 念慮가 잇서 事態는 자못 憂慮케 된다

墨國의 滿洲承認
期待키 困難

【電通멕시코시티十二日發】살바돌國의 滿洲國承認에 뒤를 니여 墨西哥의 滿洲國承認氣色이 보이고 잇스나 消息通의 解釋에 依하면 親米的인 現墨西哥政府는 滿洲國을 承認치 안으리라 한다

八面鋒

◇英國科學動物園에서『獅子』와『虎』를 交配하야『獅子虎』를 낫토록 하고자 試驗中。

◇『베니스』別莊에서 密會하는『무솔리니』와『히틀러』는 무엇을 나허 노흐랴는고。

◇『歐洲의 政治的 打算』이 君主制復興을 꾀하야 살려 노흐랴는고。

◇『나치스』政治를 讚嘆한 前皇帝、은근히 君主制復活을 바라는 눈치。

◇國粹內閣의『파펜』副總理가 主張。民族的으로는 領袖主義、經濟的으로는 國際主義、人格的으로는 入方主義。

◇靑年은 未來를 바라고 살고、老人은 過去를 回顧하며 산다하는가。

辭令

【電通東京電話】
朝鮮總督府通譯官 米倉敏昌
依願免本官
任道立醫院醫官(七等) 福島 敏雄
公立高等女學校敎諭 稻葉 輔行
任公立高等女學校長 兼同敎諭(五等) 坂田政次郞
公立高等普通學校長 兼同敎諭(三等)

人事·集會

◇元容德氏(滿洲國軍官學校附 陸軍一等軍醫) 新任人事次來社

ヒフエキ
히 후 에 기

빨이잘 듯오
무좀、마른옴
땀띠、옴부슴진
레독、살비듬
腋臭、힌어루러이
여드름、옴
동가좀、부름
두드레이、주은깨
수챗、皮膚病一切

(試藥無代進呈)

藥價 五十錢·八十錢 一圓·一圓六十錢 全身用 五圓 營業家用 拾圓

直接本舖에 希望者는 振替口座大阪一〇六一〇番에 代金拂込이 第一安全便利하오며 附近郵便局所又는 銀行에 振替用紙로 記入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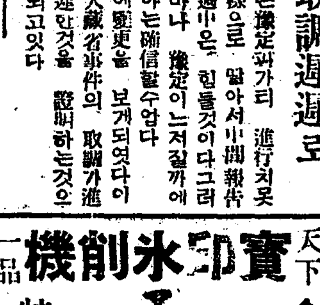
鮮滿各地特約代理店募集

皮膚病에 最新良藥
ヒフエキ를 期於히 한번만 試用하면 効力을 엇슴니다

發賣元 大江入學化藥研究所
大阪市西區周崎橋南詰東 電話新町五〇九〇·二八四五番 振替口座大阪一〇六一〇番

サンソガス フキツケ
鎔接機 塗裝機 製作販賣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り二丁目
三黃商會
電話新町二三〇六番 振替大阪五四七二五番
新工場竣成記念特賣

寶印氷削機
天下一品 今が買ひ時 特價大奉仕 完全無缺
廉價無比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大阪市西區南堀江通三丁目二ノ七
寶屋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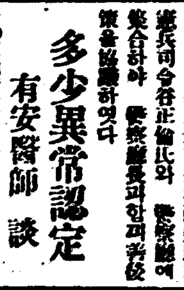
中井ピアノオルガン
諸樂器卸 商報送呈 御月報進呈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
中井樂器店

新型 コンパクト 谷種豐富
化粧眉刷 千製 樂屋用化粧品 フエスパフ 新形コンパクト 造元
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志き本舖 古澤榮七商店
電話船場四八八七番

信用할 만한 萬年筆製造問屋
(カタログ進呈)
澤井商會製作所
大阪市南區

우동·스바 豆腐其他 여러가지 반찬에 고추가루
맛잇는 고추가루
新興 番椒粉



月美人印 製造本舖
合名會社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京城 秋本商店 / 京城 辻本商店 / 平壤 吉川商店 / 平壤 柴田商店 / 江口商店 / 仁川 商店 / 元山 中村商店 / 元山 小野商店 / 釜山 小山商店 / 釜山 阿部商店

民族文化의炬火!
文字普及의새軍號
參加申請은十五日부터

명일의 조선을위하야 반도의사의 수레를 끌고나가는 청년학도들의 가장유쾌한 임무인 본사주최의 문자보급운동과 보건체조운동!—열과 힘에뛰는 우리청년학도들은 이운동에참가하야 문맹속에 헤매이는 농촌민중을 건져내려는 정열에부르거든 팔뚝이 들먹어린다 본사에서는 이민족적대사업의 「아는것이힘 배워야산다」조선의 건설의 새로운구호에 북과 나팔로써 장쾌히마쳐주는 반도 학생들의 열렬한지지를 바라 만반준비를 갖추엇다하고잇다 이에 보건체조 반지도자의 첫강습은 작십삼일부터 개시하엿거니와 문자보급반의 출적에—그지도자의 참가신청은 십오일부터 밧게되엿다 참가신청은 직접 본사로참가규정과 신청서를 청구하여도 조효 나 본사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야경향 각지중등이상의 각학교당국으로 참가신청서를 보내기로하엿스니 학생들은 그신청서에 의하야 하로밧비참가신청하여주기를바란다 하기 휴가를 가장뜻잇게 보내는이사업을 위하야 예상이상으로 다수의 참가가잇서 민족문화 사업의큰공헌이잇슬것을밋는다

歷史의車輪을끄는原動力
靑年學徒들의動員에잇다
普及班의活動記
本紙에날김업시發表

작년동경학생으로부터 하기방학이 시작되자경향각도시에서 농촌으로 또는 부근소읍으로 흐터지는 청년학생들이 민족문화향상을위하는 다못불근정성한마음을 가지고 각지에서 문자보급반을 개최하게될때 어두운문맹의 뒷거리에서 지향을못찻든 농촌은 문화의 새빗출을 마지한듯 찬연히문화전선에 선풍적 물결이 이러날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반도산하에 이러나는 중대한새사실일것이다 보라!기나긴여름날을방초욱어진산야로 일업시무엇을 어떠케하여야새사람이되고새일꾼이될것을 몰으는 글몰으는 남녀노약의손을붓들어,문화전선의 새길로지도한다는것은얼마나 중대한 일일것이냐 또그것이한두곳에서 두세명에 한한것이안이고,전조선 방방 곡곡에서,수천명의 학생여가 일시에 군호를 웨치며 수백수천수만명을,마치물에빠진사람을 건저내듯,문맹의 지옥에서문화의새길로 건저낼것이니,이는 실로 민족적 새로운중대사실이안이면 안될것이다,이에 본사에서는,각지문자보급반의 소식은 글과 또 사진으로 보도한지도자들자신이 기록한 보고서 그대로 본지에게재하야 그활동사실을 남김업시 만천하에발표하야 청년학도들의 활동을보도하여주고저한다

隊員豫報도紹介

아외에도 미리문자보급반의 활동을알리기 위하야서는 각학교를단위로 각지로동원될「문자보급반지도자들의 준비책진을 미리본지에소개코저,한다 주한학교에서 이사업에 참가하는학생들이 적은모임을 열어 각히고향에돌아가활동할포부를 서로합의한후 그합의내용과 출발지또인원등을간략한 소식을적어서 본사편즙국「문자보급반계」로 보내면소개하고저한다

朝鮮의公娼廢止
빨러야二三年以後
내무성의공창폐지결정에대한
上內警務課長談

내무성(內務省)에서는공창(公娼)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된것은동경전보와 갓거니와 그러면조선에서는 과연이에추수(追隨)할것인가필가방면에서주목하고잇는바 이에대하야 총독부경무국 상내(上內)경무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공창제도 폐지문제는명치초년부터 잇는것으로 당국에서는 국민보건상의 견지에서단연한결의를 하지못한채로 지금까지 내려온것인데 자연내무성에서 폐지할 의향이라는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권여인도상 문제보다도 국제련맹(國際聯盟)에 대한체면문제가 그동긔가 되엇슬듯하다 어쨋든공창을 폐지한다하드래도 그명칭만을 폐지하는것으로 사창(私娼)이라는 명목하에 종권과가티 건강진단기타취체는 해하지안흘수 업게될것으로 인도상 문제로보아철저히 생각하는 방면으로 본다면 미온적이라하야 반대할는지도 몰으나 점진적으로 유래가 오랜공창제도를개선함에 잇서서는 엇지할수업는것일것이다 조선으로서는 엇지 할것이냐가 당면의문제인데 아즉내무성으로부터 아모공보(公報)도 접하지 못하엿스나 조선은공창제도의 력사가 일본내지에 비하야시일이 짧음으로 비교적이제도를 폐지하기가 용이한 상태에잇다 그러나아즉이에 대하야아모것도 생각한일이업고 다만일본내지에서 실시되어 그성적이조타면 조선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야내무성에 추수하게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내무성에서실시한다고조선이 따라갈필요는 업스니까조선서어느때에이를폐지 할가는 생각할수도 업는일이나된다드래도 이삼년후의 일이겟다』

平元線工事場
人夫들의便戰
그곳사람과타곳사람새에
負傷者도만히생겨

【平壤電話】 십사일오후一시경 성천군(成川郡)대곡면(大谷面)원평(元坪)리 평원선(平元線) 철도공사장에서 목도조 (鹿島組)의인부로그동리에원적을두고사는김창손(金昌孫)(三一)이가 타지방에서와서 로동하는 오찬선(吳贊善)(四一)을보고욕을한데서 발단하야 나이만혼사람이되야서 오찬선은타방에서온 로동자 네명의응원을어더 김용찬을 라하야 는 동리사람이십구명의 응원을어더로동자합숙소를습격하야 큐숙하는 로동자 리영호(李榮昊)외폭명에게 이주일내지삼주일의 중상을입혓는데 십사일아츰열시경에 이르러 타지방에서온 로동자들은협력하야 동민의 부락을 다시습격하야 역시류혈의소동을 이르켯다 소관대구면주재소에서는 경관이 출동하야 간신히 진압하엿스나 형세가지금도 불온하다고한다

崇專生延坪島
災民慰問金

【平壤】 지난번폭풍우에 황해도 연평도(延坪島)의참화가일자본사급각방면의 구제금이답지한바 평양숭전학생기독청년회(崇專學生基督靑年會)에서 일금구원오십전을 구집하야 보내기에즉시 재지로송금하얏다

全京城팀에게 4―1 全滿洲軍敗北
平蹴…高麗戰은平蹴勝

【京城】 朝鮮蹴球協會主催와 平壤每日新聞社 後援下에 開催되는 全滿洲蹴球團第一日은 十三日午後三時三十分부터 平壤府內箕林里 公設運動場에서 名譽會長 兩道知事의 始蹴式으로 入場式을擧行後 午後四時四十分부터 高麗對平蹴戰으로 開催되엿다

京城4 全滿洲1

全京城對全滿洲戰은 午後五時十分부터 李仁(主)金容植(副)審判으로 開戰 滿洲의「킥어프」로開戰 滿洲軍은比較的長身巨軀임에反하여 全京城軍은少短軀이어서 風勢와技術을利用하여滿洲門前에肉迫하여 四五次의「찬스」가잇섯스나「업싸이드」로無得點되다가十八分RI金永根「슛」한것을 滿洲GK劉天翼「캐취」하여 再次「슛」하여 一點을 어든後一進一退러니 四十分滿洲「코—너」를어더RW郭義達「슛」한것을 CF郭翊祺 再次「슛」하여 一點을 加하고 三十一分 CF金成玕四十四分CH金容植의「슛」으로各其一點을 加하여 滿洲GK後半戰三十秒에「포워드」總員이滿洲門前에 突入하여LI「슛」奏効 最後十分을남기고 滿洲軍總攻勢에出하엿스나「모숀」이늘이어서終始奏効치못하고「타임업」되니 初日에四對一로全滿洲軍慘敗하엿다(競技時間九十分) 危機를 脫出하엿다

【京城】		【滿洲】	
K	(宋基宇)	(劉天翼)	
FB	安洙錫 鄭龍洙	姜成平 蔡寶珠	
HB	李毅漢 金容植 金炳禧	金基命 友納雄三 呂作富	
FW	李敎淳 金永根 金成玕 崔鼎錫 李榮宗	郭義達 孫承祺 郭翊祺 李永新 裴序徹	
	(京城) 4 17 18 3	(滿洲) 1 18 7 10	得點 GK 門擊 犯蹴

平蹴1 高麗0

手拝綱羅한「피어필」인高麗蹴球團戰은 四時四十分부터立正桂(主)金成玕、金光信(線)朴永哲金允基(門)五氏審判、高麗先蹴으로開戰하여 前半戰1―0後半戰0―0結局一―零으로 平蹴勝利하다(競技時間七十分)

【平蹴】		【高麗】	
K	(金信福)	(張麟俊)	
FB	朴炳烈 張炳五	黃曾孫 全八成	
BH	韓龍浩 尹昌善 朴仁植	鄭鳳五 朴永根 李錫桂	
FW	朴永煥 朴譔鉉 李貞植 李正五 韓泳澤	東賓永 張應鳳 李錫德 文錫碩 孔元俊	
	(平蹴) 1 4 6 3	(高麗) 0 17 1 4	得點 GK 門擊 犯蹴

中等庭球리그三日
養正、普成、徽新勝
一點差로中東、徽文惜敗

京城市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第十二回庭球리그戰第三日은午後四時부터 中央高普코—트에서擧行한바 養正、普成、徽新各勝하엿다

養正20 中央2
○(金石萬 張燮鉉) 4…0 (吳星 蘇鎭健)×
○(任完淳 尹奉淑) 4…0 (姜鎭遠 朴大緖)×
○(李乘雍 金澤周) 4…2 (成東允 張溟燮)×
○(金周煥 朴鍾求) 4…0 (李寅承 吳泳旭)×
○(朱永鍾 尹蓍得) 4…0 (成基昌 金正中)×

普成13 中東12
○(安秀善 尹泳讚) 4…3 (嚴璞 鄭輝斗)×
○(尹錫元 柳海彬) 4…1 (孫緖 金在洪)×
×(高乘成 玄珉泰) 0…4 (金德勝 李主雄)○
×(許鏞 金時鉉) 1…4 (李奈用 李基三)○
○(李同環 李應相) 4…0 (金利洛 金琪鎬)×

徽新14 徽文13
×(張錫根 朴敏亨) 2…4 (裵裕淳 金漢典)○
×(崔振淑 白相範) 1…4 (閔丙鈺 徐炳圭)○
○(白潤永 金鍾九) 4…1 (朴興玉 李某)×
○(金鍾九 白潤詠) 4…0 (李圭 李)×
×(朴者三 張尙周) 3…4 (金鍾道 李某)○

中等蹴球리그 (13日까지勝率)

順位		習數	勝	敗	無	得點
1	徽新	3	2	0	1	5
2	中東	2	1	0	1	3
2	普成	3	1	1	1	3
3	徽文	2	0	1	1	1
4	中央	2	0	2	0	0

中等庭球리그 (13日까지勝率)

(順位)		(習數)	(勝)	(敗)	(率)
1	普成	3	3	0	1.000
2	徽新	3	2	1	.667
2	徽文	3	2	1	.667
3	養正	3	1	2	.333
3	中東	3	1	2	.333
4	中央	3	0	3	.000

八百餘警官增員
具體化한警務局明年計劃의
高等警察擴充內容

현재 조선내에는 약이만명의 현직경관이잇고 각면에는 주재소가잇는외에 국경과 항만(港灣)등 중요지에서경관출장소등이잇서 조선내의 치안공작에당하고잇는데 최근조선내의 사상경찰기타 고등경찰에관한 대확장계획은 매년잇는바 명년도에는 과거에 보지못하든 대규모의 고등경찰망확충계획을하고잇는데 최근 예산편성긔를압두고 구체화된 고등경찰망을총괄적으로보면 대개다음과갓다

一、현해탄(玄海灘)을 건너가는 조선인로동자취체와보호에관한 고등경찰을 명년부터는 철저히하고저 경부와 경부보를 이십육명 순사칠백사십륙명을 증원하야 이것을 경긔도이남의 각도에배치한다

二、함경북도는 최근대만주대 소련(蘇聯)관계로 도시상운동이 격렬하여가는중요한 관문임으로 함북고등경찰망의 확충으로 경부와 경부보오인과 순사십팔명을증원한다

三、북조선과 신석(新潟)간항로의 이동경찰에 경부보두명과 순사사십륙명을증원한다

四、려수(麗水)와 구주 박다(博多)하관(下關)간의 련락선과 제주도(濟州島)와 대판간의 련락선의 이동경찰반을 확충하기위하야 경부보두명과 순사십륙명을 증원한다

권긔와치가 고등경찰에 종사할경관만이 경부이하 순사까지 실로팔백오십일명에달한다 이외에 치안유지법이개정되면 이에대한 보호관찰에종사할 경관을합하면 실로일천명이상을 대동원하게될셈인데 이것은 순전한 고등경찰과관중만의증원이고 이외의 자연증가 형사경찰망의 증원등을합하면 실로막대한수에달할것이라한다 이로써면 권하는 총독정치의 새로운면목을보이려한다

外地派遣員도增置
朝鮮人의取締、保護策으로
滿洲新京과大阪에

권긔한바와가티 조선내의 고등경찰망을 전에보지못하든 대확장을 계획하고잇는 경무국에서는 조선내에만 머추지안코 시해외에잇는 조선 인 취체보호에 대하여도 긔설긔관의확충과 새로운긔관을 증설할 계획을세우고 권긔고등경찰망의 확충계획과 동시에예산을요구하야 명년부터 실시하게되엿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즉 신경(新京)에는 현재촉탁부파견원이 잇스나외사과(外事課)직속으로 일반행정과대외관계 재만조선인보호등 사무에종사할 긔관으로 이번에는조선인을사찰할 긔관으로 긔입사무관한명과 통역생 약간인을 주재식히게한다 그다음에는 일본내지에는 현재동경에 경무국 파견원이 잇슬뿐인으로조선인이 가장 만히재류하는 대판(大阪)에도 파견원을두고 조선인에관한 사찰과취체보호를 하기위하야 속관한명과 고원한낭을 두기로하엿다한다

尹致昊氏七旬
記念會發起

한말유사(韓末遺士)로 교육과종교계를 비롯하야 기타각방면에공헌이만흔 좌옹윤치호(佐翁尹致昊)씨는 금번으로써 칠순(七旬)을 맛게되엿는데 씨의그동안 사회에대한 공헌을 져기하야 희년축하(稀年祝賀)를 하기위하야 씨의친지와밋 사회각방면유지 칠십여명이 지난십일일 청년회관에서 모여 좌옹희년기념회(佐翁稀年記念會)를발긔하고 그발긔회를열엇는데 오는십일월십오일에 축하회를열고 그와동시에 좌옹의 전긔(傳記)를 발행키로하얏다

苦學生갈돕會
十四週記念式

시내효자동(孝子洞)에잇는갈돕회에서는 오는 이십일오후 팔시 동회관내에서 십사주년기념식을거행한다 식에는 각지의 회원은물론이어니와 참석을바란다더라

中人賭博團에罰金

(太平通)이정목삼백오십오번지 중국료리점광창(廣昌)에서 도박을하다가 본정서에 검거된 중국인마흔세명은 그간 엄중취조를바더오던중 십삼일에야 취조의결단을보아그주모자인 중국인 원은 나머지는 모다 칠원식의 벌금형에처하엿다 한다

본처소생세살먹이
생식긔를칼로도려
금일소격동에생긴불측한사건
첩의소위로인정취조

첩과본처가 한집에 거처하는 중에 본처가박겨나가고 업는 사이에 본처소생인 세살난어린아이의 자지를 칼로버혀버린듯가만하야도 잔혹한 괴사건……원적을경긔도 양평군섭악면 옥곡리(楊平郡雪岳面玉谷里)에둔 어영한(魚泳漢)은얼마전에서울로이사하야 그 본처되는 박봉희(朴鳳姬)(三二)와 그첩 홍문서(洪文瑞)(三三)과맛아들 기수(基洙)(六)와둘재아들광수(光洙)(三)다섯명식솔이함께 시내소격동(昭格洞)일백십오번지에 거처하든중 십사일오전열시경에 어영한은외출하고업는사이에 그본처되는 박봉희는 개천에 빨래를하러나갓다가 집으로도라오자 둘재아들광수가방안에서울고잇슴으로 드러가본즉 누구의소위인지 예리한칼로어린아이의자지를도려피투성이가되어 잇슴으로 의외의참변에놀라그의씨앗되는홍문서에게 엇지된 까닭을무릿스나 홍문서는 컨연할수업다고함으로 피투성이가된 아이를안고 부근의천병원으로 달려가서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아직도 생명이위독한중상이라고한다

급보를바든 종로서 에서는경관이출동하야현장을검사하는한편으로 범행의자로 어영한의첩되는홍문서를인치하야방금엄중취조중인데 아즉은 자백을하지안흐나 조사가 꼿나기전에는 자세한사정을알수업스나 본처와첩이 한집에동거하는중 질투에서 일어나는참극으로보고잇다고한다

未成年者飮酒取締

근래 경성시내에는 『카페—바』 식당등이 곳곳에 벌여잇서빈빈히 풍긔상 조처못할사실을배치내고잇는 이지음 십일오후열시경 본정서원이 영정정(榮町)삼정목구십팔번지 소정(小町)식당을 검거하엿슬때 외에도 아직미성년인 시내상업학교오학년재학생송하(松下)모외 사오명이 술을 한목취하야 내금품을때리고 자미업는 행동을하는것을 발견하고 그밋은경고를 하엿스나 이사실이 판명되어 학교당국과그교원에게 통고하는동시 관내가전부 이런사실이 업도록할방침이라한다

陸軍官舍專門의
大膽한竊盜犯
憲兵隊에서檢擧

작년봄부터 륙군관사를 전문으로 양철지붕행세를하고 드나들며주인업는 틈을타서 양철오리는도구를가지고 잠을쇠를 열어모매약(大樹)관사의십여처에서 절도를계속하야 그피해가 천수백원에 달함으로 룡산(龍山)헌병대에서는 이범인을 엄탐중지 난십삼일 드듸여체포하엿다 주범양룡안(楊龍安)(三二)은전라북도군산(群山)에살면서양철영업을하며 경성에와서는숭인동(崇仁洞)일백사십일번지 남일(南一)려관에류숙하고 공범인백만룡(白萬榮)(四一)과부하로써서룡산륙군관사를 도려다니며 금시계 금줄 양복등수백원어치를 훔쳐다가숭인동(崇仁洞)일백오십일번지고물상림룡환(林龍煥)(三二)외종로모고물상에게 파러돈을 바터가지고는 군산에도려갓다가 얼마잇슨후 다시경성으로 출장하야 륙군관사를 도려다니며 절도를 한것으로 수사상 여간곤난한것이아니엿다 고물상도 대개장물로알면서 산혐의가 농후하며그들은 이외에도여죄가 만흔모양으로 룡산헌병대에서 엄중취조중이다

銀半指盜賊

삼이일오후다섯시경 본정서사법계에서는 경성역 상본정대합실에서 충남천안군직산면,모시리(天安郡稷山面毛時里)권성로(權聖魯)(二六)를 인치취조중인데 그는 이날오전열한시경 종로일정목 모금은상점에서 은(銀)반지 세개와오후네시경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팔번지산내(山內)서점에서 회루네목을훔친것을자백하엿다 한다

男便放蕩을悲觀
主婦가飮毒自殺
시내수창동에서생긴사건

시내수창동(需昌洞)십팔번지 리항구(李行九)의안해 엄경순(嚴敬順)(二二)은 자기집에서 비상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당주동(唐珠洞) 전일(全一)의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가하엿스나 드디여 절명되엿다 그는남편이 항상주색에빠저서 집안일을 돌보아주지아니함으로 집안살림에 희망을일코 그만자살을 계획한것이라한다

頻頻한夏節變死事故
玉仁洞에縊首屍

십사일 열한시경 부내 평동(平洞)사십사번지 리석문(李錫文)이옥인동(玉仁洞) 솔밧을지나가다가 목매여죽은 시체를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게출하여 왓슴으로 이서에서는 즉시현장에출동검시한결과 그는상동(上洞)오십륙번지 장준식(張俊植)(五三)인것이 판명 되엿는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다

軌道에누어서
자다가轢死

십삼일오후세시 사십분경에 평원서부선(平元西部線) 자산봉학(慈山鳳鶴)간을 맛오는 제팔백삼사호렬차가 진행하든중 순천군풍산면 고읍리(順川郡豊山面古邑里) 리병일(李秉一)(三五)이가 술이취하야 선로에서 누어자는것을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얏스나 미치지못하야 력사식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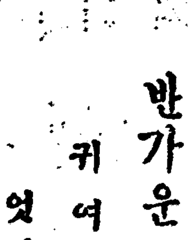
天氣豫報
晴一時曇

低氣壓은 滿洲北部에잇고高氣壓은小笠原島附近 海上에서中國東海에로 擴大되야그尖端은 黃海에突出되여잇다 全朝鮮은大概日氣가조코 靜穩하다 明日도日氣는良好하고더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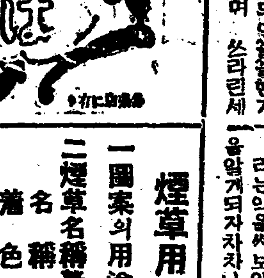
昨日最高 二三度六
今日正午 二二度一

칼네라對페어
世界拳鬪爭覇
今十四日「뉴욕」에서

伊太利人「칼네라」對米人「페어」의世界拳鬪選手權爭奪十五回戰은 世界各國關係의待望속에 十四日『뉴욕』써「롱아이란드」에서 對戰케되엿다 體重三十貫의選手權保持者『칼네라』는 再昨年『싸키—』를 擊破한以來그의驚異的躍進은 世界에서第一人者로 自他가公認케되엿든바 이번米人『페어』는 『칼네라』의選手權에對하야 새번째挑戰者로서『페어』의 突進的戰法은巨人『칼네라』를볼리칠形勢에잇슴으로,이一戰의人氣는極度로高潮되어잇다 戰前의豫想으로는,公平히말하면『칼네라』가勝하면KO勝일것이요『페어』가이기면判定勝일것이다 體重이約六貫가벼운關係로六分四分의豫想이다(「칼네라」가有利하다)


반가운소식
귀여운애기를 엇더케하면 낫나?

나는 엇재애기를 못낫나하는말삼은 평화한가정의주부들이 시부모님편시중에골몰하시는안부인들의 애달픈하소연이며 스롱과박대를한몸에동지시고말삼하시는 눈물겨운고향일것입니다…… 참으로세상에는귀중한보배라귀여운 물건이만으나 뭇엇보다 사람들은 아해를의어거리고재롱부리는 아해들의어리광이야말로 귀여울것이니 그와갓흔아해들로하여금 모도이 저버리게되며 내일의희망을새로 힘차게갓게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에넘치 는가정도 귀여운아드님 따님을나치못하면 드듸여쓸쓸한가정생활을밟우게되며 쓰라린세월을보내시는분이얼마나만슴니까? 그리하야애부분들는그것을 자기의 팔자나 전세의인연이라고 신세한탄하시는모양인데 근래와갓치 화학문명이발달된때에잇어서는 반듯이그원인이 잇어엽신못한다하야 모든원교의때종을거더치고부부협력하야 그원인을차저서 세상에도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을나키고자하는것은 江原道 金泰潤氏의夫妻이니 오래동안 자북이업서 신세타령으로 애닯는 세월을보내시다가 근처사람의 권고에 건강히보여도자북이업 을』 반듯이부인병이잡복되여 그러타는말을듯고 권하는대로 『명지모와『오기나구』를써보앗더니송엇든병 을알게되고자차차나시가며고대하 든가정도 귀여운아드님이 다라나 니그러지켓 나흘이더욱 다욱매 을 나『그와에도 오래동안 부인병으로 고롱을맛든부인이 『명지모』 와『오기나구』로반듯으로 전쾌되 야 양편이되시고남편과도 귀여워 귀중하여졋다니 참 라난 이런사실의예와 부인병자 허조선회에는 과 가정의행복을 자세 하게 적은책을보보(朝鮮日報)二百六十四페 지나되는 책을보 독자에게는 뭇지하시는대로거 저드립니다하오니 자북업스신분 부인병으로 고롱하시는분은 하 로밧비청구하시와 행복의열매 를 어드시도록권하노라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の母本舖


齒痛과 頭痛에
먹으면낫는
一田効散
神經痛鎭靜、神經 을强制히 神經痛
무마치스等에奏 効驗逸品 泣顏도 笑顏으로變함

煙草用小函圖案懸賞募集廣告
一 圖案의用途 煙草用小函(紙卷煙草「曙」七草用小函)
二 煙草名稱着色及圖案에插入할文字
名稱 曙
着色 三度刷以下
圖案中에挿入할文字
三 圖案의原稿 用紙는제한업고紙又는畵洋紙를쓰고圖案의크기는小函의치수에適合식힐것、그리고原稿裏面에應募者의住所、氏名을明記하야封筒의表面에「圖案懸賞應募」라고朱書할것
一人이幾枚應募라도可함
四 締切期限 專賣局到達期限 昭和九年七月三十日
五 賞金 一等一人 參百圓、二等一人 百圓 三等三人 一人에對하야 參拾圓
選外佳作 若干 一人에對하야 拾圓
六 結果의發表 審査의結果는昭和九年八月上旬中에朝鮮總督府官報에廣告로서發表함
七 其他 入選된圖案이라할지라도使用치안코又는叚更하야使用하게도됨
入選圖案은專賣局所有에歸함
本懸賞募集에關하야아즉不明한點은直接專賣局事業課製造係(電話本局四、一七〇番構內一四一番)에問議하시압
京城府永樂町 朝鮮總督府專賣局

임질 리베—루 効驗迅速한
內服數時間後에靑色尿가나오며 尿道의淋菌死滅하야放尿와함께排泄됨 그럼으로止膿이되고痛症이速救함
竹村製藥

募集
朝鮮タイピスト養成所
學科課程 一部로五部까지設置 學習生을募集함 希望者要來談
京城府古市町四二(和信文印刷物取扱)

京城府安國洞一五五 電光四九
醫學博士 許信 産婦人科醫院
入院隨意・隨時診療

四季鳥 初生雛分讓
京城府西大門外 阿峴里九〇番地 副業獎勵社 白

種蜂 養蜂具一切
(定價表進呈) 豊國養蜂場
京城府竹添町二ノ一四八 振替京城 二二 二三三

特許 便所惡臭防止 イマン芳香油 芳香을發함 臭氣를막고

最新 皮膚 차—지 開發 根本的無痛及深部에滲透療法
定價三十錢、五十錢、一圓
東京神田 共同藥品

六月十三日부터特別大公開 朝鮮日報讀者優待
大活劇 金髮騷動 全九卷
大河劇 우리들의天下 全九卷
桃花劇場

新劇中 國成社
悲劇 紅 最後의瞬間
喜劇 大愛 學生街
時代劇 呼天悲魂

盜難當한게罪로 巡査게毆打當해
문단속잘못햇다고욕설도주워 被毆打者告訴提起

【釜山】 경남김해군대저면대두리(金海郡大渚面大斗里) 권종필(權鍾必)(三八)은 동면두리 경관주재소 현직순사 리편회(李便會)(二六)를 상해죄(傷害罪)의고소장을 십삼일부산지방검사국에 제출하엿다는데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갓다고한다

고소인은 지난륙월구일 밤중에 자긔집도장에 자허둔벼(正租)다섯말(五斗入一叺)한섬을 도난당하얏슴으로 즉시 도난계를 동주재소에 제출하엿든바 수석(首席)순사와 피고소인이 현장에나와 피고소인이 이집주인은 도장을 잘잠것든가하며 뭇는말에 문단속을엉중이는 아니하엿다함에 도장문을 엉중히단속아니하엿기때문에 도난을 당하엿다하며그것은도적을양성하는것과 다름업다는등 도난당한것이 주인의 불찰이라하야 욕설을함부로하며 심지어구타까지 감행하야 이런도난계는 소용이업다하야 땅바닥에 던저바림으로 고소인은 다시도난계를 집어가지고 수석순사에게 주어 겨우겨울하고 넘어나순사의 배행에 격분하야 두세마되말성을하얏드니 피고소순사는 일칭격노하야 구타를 대하얏슴으로 드되어 상처가 나게되여의사의진단서까지 바다 소장에첨부하얏스며 수석순사도 이러한행동을 제지하지아니하고 방관하고잇섯다는 것재상 무성의를열거하고 처벌을 하여달라고 하엿다한다

蠶繭暴落으로 養蠶界에 大異狀
桑木을뽑고穀物播種

【陰城】 충북음성에는양잠사업이 다른곳에비하여 대단적합지인관계로 당국에서는 년래로 적극장려한결과 농촌으로는 이곳이 한부업으로 유리하다하여 각농촌에는 상원으로마을을장식하다시히 되엿는데 금번잠견폭락으로 민간에서는 대실색을하여 모다뽕나무를 뽑아내고 다른작물을 심은것이 유리하다하여 동요하는현상이나 군당국에서는 양잠보지상 적극저지하는중이라한다

釜山府尹걸어 賠償請求提訴
醫師의過失로患者肋骨에 注射針이백혀서苦痛

【釜山】 부내 부평정일정목(富平町一丁目)이십이번지 복전순지(福田淳之)는 부산부윤토옥전작(釜山府尹土屋傳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칠천원의 청구소송을 십삼일 부산지방법원민사부에 제기하엿다는데 소송내용은 원고복전은 금년열살되는 유년으로서 지난소화륙년륙월십이일 당시 일곱살때에 늑막염에걸려 피고경영인 부산부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밧든중 당임의사의과실로 엽구리에 주사침(注射針)이 바이어 이로인하야 갈비뼈두개를 끈어내고도 굽어진 바늘을 차자내지못하고 늑막염에대한 치료만바더 전쾌한후 이래 소학교에입학하엿스나 운동만하면 열이남으로 일체의 운동에관한 학과를금하야 그부모는 두중을알으며 굽어진 바늘을 차자내기에 각방면의박사에게 진단가료를하엿스나 금일도록발견하지못할뿐아니라그대로 방임하야두면 체내에잠겨 해잇는바늘이때때로혈액을따라 폐장(肺臟)심장(心臟)으로이동하는수가잇서서생명에위험이잇다함으로륙체상으로물론정신상에도 만흔고민을밧게된 원인에대하야 병원경영자 현부윤과당시 치료담의사는 맛당이 손해배상을 하여주어야 된다고하며 물론금권으로 대상할수 업는일이나 왕왕이의사들의 실책으로환자의손실을 보게함으로 이런소송을 하게되엿다는데 의사의과실치료에대한 환자의 항의는 도규계에 경종(警鐘)이라 하야 일반의정과를가주목중이라한다.

朝鮮樂壇의寵兒 梨專巡廻音樂團
七月二日鐵原에서演奏 六新聞支局後援

【鐵原】 조선악단의최고권당(最高殿堂)인리화녀자전문학교하긔북선순회 음악단의 음악대회는 칠월이일 오후칠시반에 철원읍철원극장에서 당지 긔독교조선감리회 철원읍교회의 엡윗청년회와본보 철원지국을 비롯하야 매신,동아,조선,중앙,조선신문등 의후원으로 개최하리라는바 멀서부터조선악단에혜성(彗星)인 윤성덕(尹聖德)교수를 비롯하야 천사(天使)와 가티 어엽부고귀여운조선의 젊은딸들의 입에서 흘너나아오는 그웅대하고도청아하고 도명랑한 멜노디는물론이어니와 비단우에 꼿을노흔것과가티 연주회때마다 긔재를발휘하야 청중을 도취케하는 김영의(金永義)양의 피아노독주와 반주는만장을황홀한 예술경(藝術境)에 도취시키고야 말것이다 리화음악단이번피가리 녀자음악단이 철원에서 처음이니만큼 그야말로문자그대로 처녀의 음악대회임으로 크나큰 인긔와 아울너대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四十餘鑛夫의 피땀흘린勞賃
千七百圓을橫領逃走

【海州】 해주군대차면은동리(海州郡代車面隱洞里)해주광산(海州鑛山)의 광부사십 여명은 당장에먹을것이 업서서 아사경(餓死境)에 이르럿다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박진회(朴振會)(三?)라는자가 해주금광에 덕대로잇고 피해자사십여명은 로동을하엿는데 지난륙월오일 광석대금일천칠백원을 횡령도주하엿슴으로 캄캄한굴속에서 생명을내여놋코 로동하든 광부사십여명의가족은 회계날만 고대하다가 로임을전부횡령당햇슴으로 당장에먹을것이업서서 처자들과 산곡간에서 방황하며우는참상은 참아볼수업다고 한다

七十八歲老人을 痴情嫌疑로亂刺
犯人은六十歲의飮食店老人 平原郡의一넌센스劇

【石岩】 평원군동암면암적리(平原郡東岩面岩赤里)일백오번지(一百五番地)에거주하는 리호익(李浩翊)은 금년 칠십팔세의 로인으로 지난륙월십일 오후네시경에 동리륙십륙번지에서 음식점영업을하고잇는 오인석(吳寅錫)(六○)의 집압을통행하는중 오인석이는 돌연히 리호익에게 달려들어 기리가 약아촌가량되는 소도로란사함으로 피해자는당장에 혼도한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 가해자를제저 하엿다는데 원반금보를전한 소관석암(石岩)경찰관주재소에서는순사두명과의사가현장에급행하여조사한결과피해자의상처는안면좌부에두곳과상복부좌편에두곳그외한곳 합다섯곳이요 그중복부에한곳은 깁히 일촌가량의중상을입엇는바 절차료를가하면 약이주간의 치료를 요할것갓다는바 석암주재소에서는 범인을검거하여 의심일일오전중에 평원경찰서로 압송하엿는데 원인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범인은정신병자라고하는 소문이 잇는데피해자에 말을듯건대 사건이너머 돌발적임으로 어떠한 원인이잇는지 몰으겟다고하며 범인피해 사이에는 무슨원한이 업다고하며 범인의말은 말하되피해자와 범인의 처와의사이에 불의의행동이잇다고하나 피해자의 범당이 칠십팔세의로인이니만큼 이말을 그대로신용할수는 업다고 하다

始興郡의面財政 事務費가四九%
最高七〇%最低三五%

【始興】 영등포읍(永登浦邑)을제한 시흥군의 소화구년도에산총액은 구만팔천구백 팔십이원에달하야 일면평균 일만구백구십팔원에 해당한바 최고이면사백칠십일원의 북면(北面)을필두로 최저 사천륙백구십팔원의 남면(南面)의순으로 되여잇는데 그중사무비가 사십구퍼ー센트를점하고 최다 서이(西二)최남(南)각면의 칠십퍼ー센트 최소 북면(北面)의 삼십오퍼ー센트이다 그런데 면면의부담능력을 조사하야보면 제한을까지부과할수잇는 여유액이 사천륙백십원으로 수암면(秀岩面)의 칠백여원이 최다이며 과천면(果川面)의 일백이십원이 최소로되여잇는상태로 군자(君子)북(北)수암(秀岩)각면외에는 대개가재정빈약으로 면사무수행상 막대한지장이 잇다고한다

五個所에置石 列車顚覆計劃
計劃的行動이分明 多幸이負傷은업섯다

【木浦】 지난십일일오후십시반경성역을출발하야 익일오전열시오십팔분목포에도착할제삼백일호려객렬차가 목포역에서 구배미들되는지점에서돌의의함선이되엿다 탈선장소는 경사가심하야 매우위험한곳으로서 긔관수는긔민하게정차하야다행이 려객중에 부상자는 업섯스며사십분간 연착되엿슬뿐이엿다 원인에잇서서는 궤도우에 오개소에나 돌을놋하는것으로보아 어떠한자의 고의로된 계획적행동이라하야 목포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元山樓氏女高普 第四回빠사會
六月十五、六兩日

【元山】 원산누씨녀자고등보통학교(元山樓氏女高普校)에서는 오는륙월십오、륙양일간 동교내에서 제사회 빠사ー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출품점수는 천여점에 달한다하며 동교식당부에서는 각종료리를 제조하야팔기로하고 밤서부터 식권을예매하는중이라한다

城川江첫犧牲 沐浴하다가溺死

【咸興】 매년녀름이오면 함흥성천강에서 목욕하다 익사하는사람이 십여명에달하는데 금년에들어 첫희생이 지난구일오후두시반에 생겻다 함흥부조일정륙일번지(咸興府朝日町六一)림청긔(林淸己)(一三)라는 금년함흥소학교 고등과에다니는 소년이 수상풍무와갓치수원지(水源池)부근에서 목욕하다가그곳되여긴곤때빠저죽엇다고한다

讀者優待撮影 【安邊】 남안변읍내에잇는태양사진관에서는 단양가절을긔하야 본보안변지국 독자제씨에게한하야 할인권을배부하고 음오월오일부터 실사일까지의 십일간은 오할인으로 환영하게되엿슨즉 독자제씨는 이긔회를 만히리용하기를바란다고한다

暴行한森林監守 不拘束으로送局

【水原】 륙보=리왕직회산삼림사무소(李王職花山森林事務所)주임산감곡부권원지조(谷部權元之助)란자가 지난오월사일에수원군안용면송산리(水原郡安龍面松山里)일백사십오번지 최유환(崔有煥)의처임신칠개월이나된박씨(朴氏)(三○)란녀인을구두발길로차고 번견을식혀 물게한뒤에 박축을애수차 집어더허중상을입힌 사형사건은 오월십팔일에 피해자측의고소로 말미암어 수원경찰서에서 엄중취조를바더오든중이라함은귀보한바 잇거니와 그후취조도일단락을 고하게되여 지난구일에 불구속으로서류만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검사국으로송치되엿다는데원반의주의가 집중한사건만치 그귀결은자못주목된다고한다

鎭南浦兩敎會 聯合山上禮拜
六百餘敎人動員

【鎭南浦】 첫여름의더위도어느듯도시에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푸른그늘과맑은바로 유혹하고잇는이때에 진남포신흥 비석리(新興碑石)두감리교회에서는지난십일일 일요일을긔하여 억랑거리서편푸른 언덕에서 련합산상례배회(聯合山上禮拜會)를개최하엿는데 양교회의교도 륙백여명이 대자연속에 자리를가리하고 비석리교회목사 리경선(李慶善)씨사회로신흥리교회 신임목사김종필(金鍾弼)씨의조리잇고 렬렬한강연은 일반교도들의 새로운신앙을 고취하엿스며 특히 양교회의 이십여명찬양대의 멜로듸는 실로천국의일요를 그대로자어내고 오후두시경에 산회하엿다고한다

咸南勞働會의 定期總會盛況

【元山】 함남노동회(咸南勞働會)에서는창립 제오회정기총회를지난십일 오전십일시 부터동회관내에서 각세포(細胞)대표자십여명의 출석하에 최광련(崔光鍊)씨 사회로개회하고 쾌개의안을 상정하야 토의한후동오후삼시에 폐회하엿다는데 피선된임원은 아래와갓다한다
▲理事 崔光鍊 韓範洙外三人
▲監事 文武尙 許永祚
▲特別相談役 南百祐 孫永成外三人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玄卿駿作 金熊超畫

우연한인연(二)

계순이는 혼자속으로 생각하여보앗다

혜경에게 경호의 이약이를 하기는 넘우 경솔한것 갓하엿다

그러나 경호가 가튼경성에와잇는이상 생소한자긔에게비하야 혜경이만혼 혜경이는 행여 우연히 만나지나안을까또한 맛난넌지도 알수업다는생각이 들엇다

그래서 그는 몃번이나망서리다가결국경호의 이약이를끄집어냇다

『응 그래서 계순이는 그리운사람을 차저서 서울 온셈이구먼』

『아이 사람두 놀니지안는다구 해노쿠』

『누가놀니나? 그럼 그만두께 또이약이해 응?』

『더 이약이할꺼잇나? 그리닛까 혜경이도 혹만나면 차저주어야지』

『차저주자니 얼골을 알어야지?』

『아이 참 내가이게』하고그는북구러운듯이 고리짝을 들추며

『가만잇서 나 사진뵈워주지』

『사진을?……어디좀봐』

고리짝 의복사이에서 들처내놋는 경호의사진을 혜경이는호긔심이 가득차서 바다들고보앗나 순간그의 얼골빗은 갑작히변하여젓다

『이게 누구야?』

혜경의얼골에는 확실히 놀나는빗이 떠올넛다

계순이도 덩달어서 놀나는빗이 떠올넛다

『아나?』하고 물엇다

『응』하고 혜경이는 사진에서얼골을 떼지안은채 대답하엿다

『안다?』하고 계순이는 혜경의얼굴을 뚜러지게 드려다보다가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허지만 내가아는사람은 녀자야』

『녀자라니?』

계순이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수가 업섯다

『내가 아는사람은 꼭 이사진에 얼골가튼 녀자야』하고혜경이는 모심하게 대답하엿지만 계순이는 더한층 놀낫다

경호의얼골가튼녀자!

그는 어느때 경호가 자긔에게 이약이한일이 잇는 그의 누의가 아닐까?

그때의말에 그의누의와 어머니는 그가 어려서 서울온 것이 영영 소식이 업다고 하엿섯다

『그이가 꼭 이사진과 얼굴이 가튼가?』

『응 참닯 갓대 난 처음엔 그가 남복하고 변헌것이라구!』

계순의마음은 울넝거리며을실치기 시작하엿다

그러다 확실한 그의누의다 쌍둥(雙童)이 아니면 그러케얼골이 꼭 가들리가 업슬것이다

『아니 어떠케되니 요듯케꼭 가틀까? 쌍둥이보담두 더허네』하고 혜경이는 사진을노치안은채 계순이를 처다보며 말하엿다

『그런데 그녀자는 엇던녀자야?』

『나허구 가티 일본는 녀는데 퍽 얌전한녀자야 우리보담 나희도 이상이구 그리구 퍽 우리를 사랑하여 주기에우리는 다 그를 언니라고좃아우고 잇서』

『혜경이보다 얼마나 우인가?』

계순이는 문득 그의 년령(年齡)을 생각하엿다

『나보다 삼년이상어닛까 지금 스물넷이야』

스물넷? 계순이는 전신에 범커 열이 올낫다

『그리구 그의성명은 뭐야?』

『이건 아주 경관이나오?』

『아니 글세 얼골이 가트니 그런다니 호기심이나서 뭇는거지』

『본명은 달으지만 지금 불우긴 하나꼬(花子)라고 불너』

『성은 뭐인데』

계순의 마음은 조금하엿다

『옳아 섯은참 갓헤 들니쌍동이나 아닌가?』

『김가?』하고 계순이는 정신이 몰엇나

『응 김가야』

그이상 더뭇을필요가 업슬것갓하엿다

日本產業最高章 綠綬褒章 御下賜
蝿、蚤、南京虫은단번에죽는다!
누구든지, 잡는것이 무엇보다滋味잇는夏節의家庭遊戲요
사실때는必히猪印이라고 指定하여주십시요
發賣元 上山英三郎 大阪市西區江戶堀

體裁優美 價格低廉 大衆的絹麻交織布
順川春紗
代金引換에應함 價格表進呈 商店間取引特別割引
平南順川邑 社團法人 順川產業組合
電話 二八二番 振替口座京城一九〇六八番 私書函 發電略 (サ)又八(サ)號

辭典의大亂賣
模範辭典十冊組全前의廉價提供
十冊組에단一圓
左記新刊辭典十冊總紙數二千頁를金參錢郵送하야至急處分投賣 十冊同時注文者에限하야 單一圓에 特賣(前金要送料二十六錢) ●代金引換은十冊送하라고 葉書申込次第送料並壹圓四拾五錢에送
日本一의大安値 總紙數二千頁
最新手紙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三體ペン習字辭典 青年演說辭典 日常便利辭典 戀愛文集辭典 習字速成辭典 最新國語辭典 青年作文辭典
一冊式分賣치안사오니반드시十冊組를申込하시오 注文者의禮狀이每日續續到着!
●申込所 振替東京一一九二一一 共同出版協會販賣係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總販賣部 京城鍾路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

印材 諸印章附屬品一式都賣商
中島印材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에치롱과두통
一노진
藥業우의현태

胃腸榮養 錠劑
わかもと

新發賣!
御便利한 携帶用 新蒔繪 容器入
六十錠●定價五十錢 黑●綠●京紫의三種
食傷、水傷、慢性胃腸카다루、常習便秘、弱胃腸에에네루기ー補給、旅行、執務에
당신의胃腸의 忠實한保護者로 常時準備하도록!
東京 榮養と育兒の會

當ル十二日特別大公開
新興キネマ陽春提供
新興キネマ、入江プロ高田プロ合同超特級作 原作…久米正雄先生 主婦之友倶樂部連載 監督…田坂具隆 撮影…伊佐山三郎
月よりの使者 全拾五卷
入江たか子 高田稔 主演
助演…中野かほる、浅井一郎、見明凡太郎、荒木忍、松本泰輔、浦邊粂子
靜かなる療原に炎へる、純情悲戀の陽炎、遙かなる青空、野は綠に風薫る、高原の抒情詩!!
PCL特作端篇映畫 お猿の三吉 突擊隊 トーキー版漫畫 全壹卷
新興キネマ超特級時代劇 雜誌富士所載 原作小島政二郎 監督押本七之輔 新版義士銘々傳 大高源吾 全八卷 主演…小金井勝 非勝熱演 忠臣藏シリーズ第一篇!! 久方振りの小金井が忠義篇に捕る大力作中の大傑作!!
獨乙トービス端篇特作 モツワルトの幻想 全壹卷
永樂町一 電本三三一 中央館

十五日封切 二十一日まで超特別大興行 階上席大人四十錢學生三十錢 階下席大人三十錢學生三十錢 小學兒童御利用下さい
御婦人子供の方はなるだけ晝間興行を御利用下さい
本版 フォックスニュース 一卷
監督 ジェシーLラスキープロ特作日 主演 ジーン・ロールシ レイモンド ジンジャ・ヤング
▲ブダペストの動物園 フォックス映畫會社提供 九卷
日本陸軍省特別篇輯 世界唯一同時錄音 弥語オールトーキー
輝く日本 十一卷
満鐵爆破に火蓋を切つた満州上海の大事變に或は皇軍側に或は支那軍側にキャメラとマイクを進め、世界に比なき忠烈の肉彈三勇士の壯烈の最後をキャッチし尚ほ皆つてジュネーヴに於ける松岡全權の大雄辯と我が國際聯盟脫退の劇的シーン等々國民等しく感激の極致=。これこそ世界に比の輝く日本の眞實の姿である。
明治町一 電本二六[illegible] 浪花館

經濟解說

景氣는 어듸로

그 中心點을 吟味 【三】

申泰翊

日本의 豫算은 昭和七年으로부터 一躍的 巨額의 數字 即 日本財政史上 일즉이 그 例가 업는 厖大한 豫算이 編成되여온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昭和六年까지 日本豫算의 數字는 二十億圓臺 以內에서 年度에 따라 增減이 잇섯슴에 不過하엿든 것이 昭和七年으로부터 한숨에 二十億圓臺를 突破하는 未曾有의 大豫算을 보게된것이다. 이와가튼 巨額의 豫算은 무엇을 意味하는것인가하면 豫算은 歲入歲出로 되는것인만큼 歲入歲出의 激增을 말하는것이 된다

×

그럼으로 昭和七年으로부터 歲入과 歲出이 激增되엿슴은 當然한 結果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드러오는것이 잇서야 나아가는것이 잇게되는것과 가티 歲出의 激增은 歲入의 增加를 말하는것이 된다.

▲昭和六年의 總收入은 十五億三千百萬圓 이엿든것이 再昨年에 一躍하야 二十億一千二百萬圓 昨年 二十三億九百萬圓 今年二十一億四千二百萬圓으로 激增되어잇다 이것만으로 보아서는 日本歲入激增이란 好現象인것 가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實際에 잇서서 그 總歲入의 內容에 잇서 主가될 租稅 官業收入 其他는 別로 增加가업슬뿐 아니라 도리여 多少減退된 傾向이 잇다 即

▲租稅 官業收入 租稅其他의 合計는 昭和六年에 十四億百萬圓이엇든것이 再昨年에 十三億二千八百萬圓 昨年 十三億九千萬圓 今年十二億五百萬圓

×

租稅 官業收入 其他等의 歲入으로써 歲出에 充用되여야만 正常的狀態이라고 할것이다 그런데 以上과가티 그 歲入이 增加됨이 업슴을 不拘하고 歲出만 激增되면 그 結果는 어떠케 되는가하면 所謂赤字豫算이란 말이 비로소 생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歲出이 놉것스나 歲入은 놉지안코 或은 國家에서 公債를 發行하야 이로써 드러오는것을 가지고서 不足되는 歲入을 補充케 되는것이다 即 이 公債發行은 個人에 比喩하면 借金證書와가튼것으로 所定한期間이 到來하면 그 額面의 金額을 辨濟치안흐면 안되는것이다 그럼으로 이와가티 公債를 發行하야 歲入不足을 補充하는 豫算을 가리켜서 赤字豫算이라고 한다

×

그러면 赤字豫算은 再昨年으로부터 처음 되엿든가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昭和六年까지는 歲入을 充分히 均衡을 保持하여왓든것이 再昨年豫算으로부터 처음 歲入歲出의 均衡을 일케되고 말아서 公債發行에 依한 赤字豫算을 보게된것인가 할것이다 그러는것은 아니다 昭和五年의 公債發行은 三千八百萬圓 昭和六年 一億二千萬圓에 達하엿다 이로써 보아 歲入歲出의 不均衡은 再昨年으로부터 처음 보게된것이 아닌것을 알수가잇다 그러나 이곳에서 注目을 끄으는것은 그 公債發行이 歲出의 激增을 伴하야 亦是 激增되엿다 即

▲昭和六年에 公債發行 一億二千萬圓에 不過하엿든것이 再昨年에 六億八千四百萬圓 昨年에 九億千九百萬圓 今年에 九億三千七百萬圓의 激增으로되엿바 이것이 未曾見의 數字이라는것이다

◇訂正＝前回終段中의 今年總豫算이 二十億四千三百萬圓이라고한것은 二十一億四千二百萬圓이 잘못된것이다

商業實務員 學力檢定規程

京城商議서 實施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十三日午後二時부터 議員總會를開하고 一商業實務員學力檢定試驗規程을 附議決定하얏는데 同規定은 同商所에 依하야 成規의 學校敎育의 課程을 經치못한 者들의 就職上의 進路를 開키爲하야 行하는것으로 그 規定은 如左하며 施行은 今年六月十五日부터이라고 한다

▲商業實務員學力檢定試驗規程

第一條 本所는 成規의 商業敎育을受한者와 同等의 學力을 有하다고 認할수잇는 者의 學力檢定試驗을 行함

第二條 檢定試驗은 每年一回이를 行함 但 本所의 形便에 依하야 變更하기도함

第三條 檢定試驗은 五年制商業學校卒業程度의 學力을 標準으로하야 左記科目을 行함

▲商業簿記▲商業要項▲商業算術▲珠算▲經濟地理▲商用作文(以上必須科目)

▲銀行簿記▲公民科 ▲英語▲中國語(以上選定科目)

第四條 檢定試驗委員은 本所에 囑託함

第五條 採點은 科目마다 行하되 六十點以上을 合格으로하고 百點을 滿點으로함

第六條 全科目의 合格者에게는 學力檢定證書를 授與함

▲七條、八條、九條는 省略

今日財界 (十四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物單位十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ゴム現物	[illegible]	[illegible]

金		
日銀	[illegible]	[illegible]
朝銀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本町	[illegible]	[illegible]
米國爲替	[illegible]	[illegible]

株式 高價不續 揉合

商況 (十四日)

前場先高後低 日中間

關聯事件의 原因이된 藏本英記는 生存해잇서 이問題도 以上惡化될것이아니오 政局도 現內閣의 留任모양이매 鐘紡三十弗關門인 二十九弗臺인 等으로 幾分 기운이나서 今前場은 日産이 百三十五圓五十錢에 九十錢高等을 筆頭로 東新도 百六十三圓三十錢에 六十錢高、大新百十五圓九十錢에 五十錢高를 示하얏스나 賣換無望의 反賣物이 亦是 優勢하야 漸落步調를 取하야 結局 昨後止에 比하야 日産겨우十錢高、東新反히 八十錢 大新三十錢低 되엇스며 朝新二十九圓九十錢에 도 關門制、日發六十三圓九十錢에 弱保安取四圓三十錢에 少強이엇는바 前場步調는 如左하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伸悩

後場은 東新 百六十二圓五十錢에 六十錢高 日産百三十五圓에 三十錢高에 反强寄付이엇고 新東不更 主力株取二十五圓五十錢寄後 다시 頭軟이엇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東新特히不良 日産만은頑強

藏本事記生存判明으로 日中間問題惡化念慮는 解消된것으로볼 수도잇고 政變도 留任모양이오 一段高이엇지만 藏本生存이나 外交問題는 그대로 繼續될것이오 政變有無亦判明되지안어 依然 不安이고 市勢自體로도 아즉 積極的으로 買進할만한 域에 達치못하얏슴을 늣기니라 獨逸의 平價切下로 延하야는 佛、和蘭의 平價切下와 英、米의 景氣惡化에 伴하는 念慮도 不無한까닭에 反戾면 戾賣物이 優勢하나와 大引은 東新이 特히 不良하얏고 日産만은 頑強하얏는데 東新은 別項과 가티 取引所制度 改善으로 上場禁止問題가 더욱 人氣를 衰縮식히고 잇는 것이 事實이오 日産은 獨逸平價切下도 樂觀材料視하며 또 增資를 압두고 會社側策動

株界六感

藏本의 失踪으로 暴落되더니 藏本이 살어잇다해도 市勢는 살어나지안으니 何故오?

× 取引所株 上場禁止問題로 이런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東新에 悲觀이 倍加

× 急速實現은 안된다드래도 갓독이나 買高해되고 無勢한 東新市勢에는 이따위소리가 큰 致命傷

× 依然不安과 景氣에서 오는 洗賣가 必要한 모양이냐?

× 政局安定과 共히 諸般의 環境이 好轉化를 待하야 株界自身도 整理를 完了하기까지는 結局 低迷難免일가?

× 日産은 政變이 잇서도 悲觀은 撤回하겟고 內閣留任이면은 큰 好感이 잇스리라는 期待를 가지는 모양

× 이래처럼 日産買東新賣는 繼續될 形勢

取引所株悲觀 上場禁止說有力

東株는 今後二個年間을 猶豫期間으로 制限을 바들것이며 買高激減으로 減配의 憂慮가 잇는 等 目前의 缺陷이 잇는데다 取引所制度改善의 將來에 對하야 크게 關心할바잇스니 即 經濟界各機關에서 過度의 投機를 抑制키 爲하야서는 取引所株의 上場을 禁止한것이다 勿論이 意見대로 實行한것은 아니라할지라도 財界有力方面에 如斯한 意見이 만흔것이 事實인 以上 取引所株의 將來는 悲觀치아니할수업는일로 이는 다만 東新에 限하는것이아니오 大新은 勿論 各所新株도 亦是 가튼 運命에 잇는만큼 取引所株는 全般的으로 前途에 市勢上으로 死活問題가 橫在해잇다고 할것이다.

如斯한 空氣中의 東新過去半年間(六月은 十四日前場까지의分)의 東京短期市勢高低를 示하야 보면 如左하다

東京短期	最高	最低
一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의 高價는 一日이엇고 低價는 十一日이엇는데 이제 半個年間 價幅을 通觀하면 三月의 百八十三圓이 最高오 六月十一日의 百六十圓七十錢이 最低이엇다

實物前場取引 (前場記)

賣買高三百七十枚

▲證券金融 [illegible] ▲朝鐵新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本鋼管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 [illegible] ▲東京瓦斯 [illegible] ▲日滿製糖 [illegible] ▲金剛電鐵新 [illegible] ▲東京情燈 [illegible] ▲宇部세멘트 [illegible] ▲同新 [illegible] ▲大阪瓦斯新 [illegible] ▲福島製絲 [illegible] ▲東京모스新 [illegible] ▲土佐세멘트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 賣物減이오 小口買物이잇서 內價五釐乃至十錢高를 示하고 佛貨價는 十錢高 米貨價는 爲替의 軟調로 買薄되어 六分半 五十錢高를 示하얏다

甲五分利	不申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九九、三五
佛貨四分利	一八八、一〇

米豆餘話

◇市勢는 逐日新高價로 昂進한다 쌀이 倉庫에서 썩는 데도 民間에서는 糧米不足을 絶叫

◇農民救濟를하기 爲한 米穀統制法이 도리혀 農民을 威脅하게되니 政策의 矛盾이 아니고 무엇?

◇朝鮮米의 米價는 貯租解除를 日市勢를 緩和하엿것마는 日本內地의 米價를 維持하기 爲하야 解除를 안는모양

◇그리고 일의 失敗에 歸하엿든 朝鮮米移入關稅問題가 또다시 暗暗裡에서 擡頭하는모양이니 朝鮮米의 差別은 依然 宿題化

◇朝鮮米擁護會로서는 그대로 放任하지는 안을터이니 新穀期에 入함 사록 反對運動이 또 熾烈할것을 可知

◇現內閣는 總辭? 改造? 此政變 如何에 依하야 一波瀾을 亦可期

期近더욱頑強 受米側頑張으로

期米市勢는 아즉도 昂騰을 示하고 잇슬것갓다 貯租의 解除도 手續上 米의 拂下를 하지안을 意見이라고 하면 大阪宗家와 商人의 手中에 依存되어잇는 現米로는 到底히 一般需給에 應하기 難할것이며 따라서 米價의 前途는 어느程度까지의 高價를 豫見치못할것이라하야 京城筋으로부터 仁川의 在米를 積極收買하며 아니라 北海道의 買注文이 또한 殺到하야 在米는 全혀 枯渴된狀態인만큼 此事實을 考慮하면 賣方도 投機的 策動을 加하야 買占 不然하는 先買로 市勢는 日復日高價를 示하는바 正租의 拂下와 正租解除를 요하는 民間의 在米는 到底히 前途에 여보면 政府의 所持米를 解除 外의 方策이 업스니 現下朝鮮米의 水價를 綜合하야 보면 受方으로서는 期近受渡에 買方은 곳 決心으로 比等 品薄을 느기게되는 關係上 中先의 各限이 高價를 示한다

朝取期米取組高

[illegible]

堂島前場續進 (大阪電話)

期近의 賣物을 벗기는것이 頻發하야 이에 刺戟되어 買氣가 再次 沸騰되고 株式側、地場、神戶側、西山側、馬越、三品、東客側買進이 잇고 中東側、鈴鮮側、正米側이 乘替하얏스며 東京側、北國側賣노 奏功치못하야 또 新高價로 躍進하얏다

朝鮮繭百萬石 增産計劃에 暗礁?

總督府晏然共販制度만信賴

繭價暴落影響으로

今年春繭의 市價가 豫想한것보다도 그 低落의 程度가 甚大하고 더구나 前途에 對하야도 一層不安의 念을 갓게한다 그래서 日本內地는 農林省으로부터 急遽 그 對策을 講究케되고 或은 臨時議會까지 召集될는지 모르는 形勢에 잇다 그런데 朝鮮內는 共販制度로 되여잇는 때문에 日本內地와가튼 不安의 念은 안가지게 된다고 總督府當局者는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繭價暴落으로 別項과 가티 各地農家가 밧는 打擊이 大함에는 晏然히 共販制度만 밋고잇슬 事勢가 못되며 딸아서 오늘의 形勢로는 總督府의 産繭百萬石計劃에는 暗礁에 逢着하는 結果를 보게될는지 모른다고 한다

繭價前途의 對策

形勢如何론臨時議會召集

農林省急遽講究

【電通東京電話】 豫想外의 繭價低로 蠶繭共同保管法發動要望은 客月來繭取引休業問題가 盛히 論議되고잇슴에 際하야 靜岡縣으로부터 申請이 잇슨 以來 連日各處로부터 發動申請이 잇서 十三日에는 茨城、群馬兩縣으로부터 申請이 잇섯다는바 農林省도 이를 承認하고 共同保管에 着手한 地方는 이미 三十一縣에 達하야

春繭 早出廻의 地方는 全部共同保管으로 되엇다 그리고 이 繭共同保管施設은 繭價三圓五十錢으로 下廻하는 境遇에는 發動하기로 規定되어잇는바 農林省은 처음 繭價前途에 對하야 比較的 樂觀的 觀測으로 共同施設은 昨年과가튼 程度로 發動하면 된다고 期待하고잇섯스나 全然期待가 틀리어 繭價는 未曾有의

低價 로되어 드듸어 處處에서 發動을 보게되는것인데 이 共同保管施設도 어느程度까지 繭價를 維持할수잇슬런지가 疑問이다 即 가이 早場地方은 乾繭保管에 着手하얏슴에도 不拘하고 各地의 繭價는 依然 十九乃至二十二掛程度를 示하고잇는 狀態이다 共同保管은 農林省의 豫定과 가티 全國에 實施된다하드라도 千五百萬貫으로 大體 五十萬貫生産豫想의 春繭對策으로서는

眞實 로燒石에 水의 憾이 잇다 如斯히 千五百萬貫程度의 共同保管으로는 繭價切上은 勿論 現狀維持도 期待하기어렵다 假令 春繭期間을 打開한다하드래도 問題는 直時夏秋蠶繭에 繰越되어 春繭보다도 價格의 低落하는 例가 되어엇다 夏秋蠶에 春繭千五百萬貫의 共同保管이 繰越되게되면 春繭보다도 以上의 慘憺한

價格 을 夏秋蠶에 出現할것은 明若觀火하다 故로 春繭는 엇더케해서나 打開될지 모르나 夏秋蠶繭에 이르러 마즘내 春繭恐慌이 深刻化할 傾向이 잇다 一方 農林省에서는 一貫한 蠶絲對策이 업고 無爲無策推移에 맛기고 잇는 現狀임으로 繭價前途 惡化에 따라서는 對策確立의 臨時會議召集의 要望이 各方面에 이러나리라고 觀測되고 잇다

各地農家悲鳴!

▲平澤 【平澤】 振威郡農會에서는 지난十二日부터 同郡農會議室에서 春繭共同販賣를 開始하엿다는데 春繭價가 昨年보다 約三分一밧게아니된다고한다

特等一貫一圓七十三錢 一等一貫一圓五十八錢 二等一貫一圓四十四錢 三等一貫一圓三十錢 四等一貫一圓二十五錢 五等一貫一圓一錢 下繭一貫二十九錢

▲公州 【公州】 忠南公州繭共同販賣는 同郡灘川面共同販賣場은 지난九日로부터 十一日의 三日間 公州錦町販賣場은 十二日로부터 三十日까지의 十八日間과 同郡新上面維鳩販賣場은 十四日부터 二十一日까지의 八日間 共同販賣를 開始한다는데 春繭價格이 暴落으로 一等一貫一圓七八十錢이라하야 繭代의 勞費用은 姑捨하고 뽕갑도안된다고 一般蠶家의 大打擊의 悲鳴이 놉하진다고한다

▲咸安 【咸安】 아즉 正式으로 共同販賣價格이 發表안되엇스나 一貫一圓七八十錢說이 傳하는데 昨年同期의 價格에 比하면 約五割밧게안된다고한다

▲陰城 【陰城】 陰城郡春繭共同販賣는 十三日부터 開始되엇는데 繭價暴落으로 生産者들은 落心을하는 狀態이다

特等一、七三錢 一等一、四四錢 三等一、三〇錢 四等一、一五八錢 五等一、〇一錢 六等八六錢、玉 甲五八錢 乙五〇錢

▲淸道 【淸道】 慶北淸道郡에서는 春繭共販價格이 매우 低廉하야 養蠶家는 大部分 郡外로 賣出市場을 求하는 모양이므로 淸道郡共販場은 매우 閑散狀이라 例年은 一日 二千貫 共販되든것이 一日 四百貫內外에 不過하는 販賣數量에 不過하다

特等一、八八錢 一等一、七二錢 二等一、五六錢 三等一、四〇錢 四等一、二四錢 等外一、〇八錢

生糸五百圓 畢竟崩壞出現

繭價暴落을 傳하는 때인만큼 生絲市勢의 動向如何를 一層重視하는바 十四日橫濱生絲(先物)의 止價는 畢竟五百圓關門이 깨여저 四百九十八圓으로 十三日前場止價의 五百三圓에 止하면 五圓의 低落이다

期正米와正租 一齊續爆進

貯藏正租解除안흐면 騰勢挫折至難視

在米가업는데가 各需要地의 注文은 殺到하야 朝取仁川前場에 中限과 先限이 모다 二十四圓大關門을 突破하는 騰勢로 逐日暴騰에 暴騰을 거듭하는 米價는 처음 不知의 勢로 躍進이엇스며 各地正米市에 正米高로 期米高를 招하야 드듸여 十四日에 至하여서는 비롯하야 京、仁二十五錢高를 示하얏스며 正租市勢도 仁川改良種六錢九厘로 또 五毛의 繩騰을 示하야 貯藏正租解除를 速히하지안는 限 容易히 이騰勢를 挫折식힐수업고 投機市勢를 더욱 演케할 形勢下에 잇는바 十四日各地正米市勢와 前日比較는 如左하다

	十四日	比前日
京城	二三九〇	二五高
仁川	二三九〇	二五高
群山	二三七〇	二〇高
木浦	二四一〇	不變
釜山	二三六〇	二〇高
大邱	二三四〇	五〇高
鎭南浦	二三五五	一五高

鰮油販賣價

一罐에一圓十七錢

◇…水組와朝油脂間에

鰮油의 第二回入札結果도 依然公定價格에 達치안엇슴으로 隨意契約에 依케되야 水産組合對朝鮮油脂間에 一圓十七錢으로 十四日契約이 끗낫다 그러고이것은 六月中의것으로 七月以後의것은 更히 協定키로되엿다

移出入의 五月貿易

入超千餘萬圓

【總督府發表】 五月中 移出入貿易을 보면 移出二千九百九十八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百四十六萬圓增 移入은 三千九百七十萬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九百九十二萬圓增인데 入超는 一千四十八萬圓이다 (以下單位千圓)

	今年	前年	增減(△印減)
移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對滿貿易

入超減의傾向

【總督府財務局調査】 五月中 朝鮮對關東州及滿洲國貿易은 아래와갓다 (以下單位千圓)

		比前年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出入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百二十四萬圓의 入超로 前年보다 三十萬圓의 入超減인데 一月以後의 累計가 아래와갓다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輸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貯銀預金利下

八月一日內定

貯蓄銀行은 普通銀行의 預金利下에 伴하야 七月末 或은 八月一日로부터 利下키로 內定하엿다고한다

蘭印麥酒의 輸入制限令

다시四個月을延期

【電通바다비야十三日發】 蘭印政府는 昨年十二月十二日以來 實施되는 緊急的麥酒輸入制限令은 이미 一期實施期間이 지난三月로 끗남으로 三個月間延期適用하엿는데 十三日로써 이것도 滿期가될으로 또다시 同政府는 압흐로 四個月間 延長實施케되야 即日 務合하엿다 即十三日로부터 압흐로 四個月間 輸入許可量은 十四萬八千릿톨이라고한다

馬克平價切下 朝鮮의影響?

直接으로는輕微

▲…山澤商工課長談

獨逸馬克의 價切下의 消息이 確實하다면 이로因하야 朝鮮經濟界에 밋치는 影響이 어떠할가함에 對하야 山澤商工課長은 압에와가티 말한다

朝鮮對獨貿易을보면 昨年에 輸出七十二萬圓에 達하엿스나 이것은 硫酸암모니아가 처음으로 輸出된 臨時的現象이다 再昨年에는 겨우 二千二百圓에 不過하엿다 그러나 輸入은 再昨年 八十一萬圓 昨年四十二萬圓으로 이中에는 大部分이 機械 또는 藥原料이다 그러나 間接的影響으로는 日本對獨逸의 貿易이 相當할것이다 이를 통하야 朝鮮에서 輸出되는 陶磁器、玩具、鐵製等이 獨逸品의 販賣을 招致하야 日本으로서밧 販路를 바늘는지모른다

大豆輸入을許容

物物交換의境遇에

▲…獨逸의態度가判明

【新京十三日發聯合】 某處報에 依하면 數日前大豆問題에 關하야 氏는 外相經濟相과도 協議한 結果 大豆、豆油、製品等의 輸入은 物物交換의 方法에 依하야 決濟할수잇는 境遇에 限하야 許容할 方針을 決定하엿다

期米 品貴로 投機買

畢竟廿四圓臺突破

前場暴騰 前後場 阪地二十六圓七十錢止와 共히 二十三圓九十五錢에 場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六圓七十九錢인 九丁反高를 擧하고 二十四圓〇四錢인 亦九丁高로 場寄始한後 阪地二節八十錢臺로 昂騰함을 따라 等店의 買物이 續出하야 防戰强에도 不拘하고 當限은 九十五錢으로 先限은 四圓〇五錢으로 海騰하엿다가 三圓九十錢으로 小押한後 結局阪止七十六錢과 共히 三圓九十一錢에 止場하얏다

後場反落 後場은 二十三圓九十錢에 一丁低로 始場後 二丁三節同價에 釘着이오 八十三錢 止場하다

投機買物續出 品薄을 窺하고

政府는 在米의 品薄으로 中農以下와 一般消費者의 威脅을 受할에도 不拘하고 持米側의 賣物이 [illegible]

正米 大邱筆頭爆進

期米高와 倉皇買로

京城續高 當用의 買氣가 熾烈化한데다가 期米品騰으로 一氣二十五錢續高인 ㊤三等二三、九〇 四等二三、六〇

仁川暴騰 日本內地入注가업스나 京城을비롯한 地方의 需要가 漸次顯著케되어 實行이 機讓活潑하야 二十五錢暴騰인 ㊤三等二三、九〇 四等二三、六〇

大邱爆騰 定期高로 實腰는 去益 硬化되고 各方面의 買物이 入함으로 氣配는 一氣로 五十錢爆騰하야 ㊉三等二三、四〇 四等二三、一〇

木浦好調 出廻업고 昨日 安定되엇스나 期米高로 買氣가 再燃하야 實行好調이오 ㊂三等二四、一〇 四等二三、九〇 一等白米二〇、一〇

釜山沸騰 出廻二千五百叺、期米의 新價躍進으로 日本內地入注가 一層頻繁히 入込하야 問屋側 地場共히 손을 弛치안코 買進함으로 市況이 沸騰되어 二十錢高인 ㊂三等二三、六〇 四等二三、四〇 一等米二〇、〇〇

群山奔騰 出廻四俵 地場의 買物一巡으로 場面에 活氣가 乏하다 期米一段高를 보고 實人이 一段高 場合으로 人氣二十錢奔騰하야 ◎三等二三、七〇 四等二三、六〇 一等白米一〇、四〇

南浦躍進 在米의 逐減으로 品薄念慮가 더욱 濃厚케되어 白米商이 狼狽的으로 買進함으로 日本內地不合이나마 十五錢躍進하야 ㊉三等二三、五五 四等二三、三五 一等白米九、六五

市況表

金融 (十四日)	
海外爲替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貫入價	[illegible]

米穀 (十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四日)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時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時勢	[illegible]
錦紗冷價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東新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績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米 (十四日)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商品 (十四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